

# 창극 '적벽대전' 발레 '호두까기 인형' 공연

###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 참여 광주문화재단, 중학생 모집

광주시립예술단 하반기 프로그램

시향, 손민수·김동현 등 협연  
발레단, '백조의 호수' 갈라  
극단, '나의 살던 고향' 무대에  
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 정경'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은 올 하반기 발레 '백조의 호수', 창극 '적벽대전', 낭독극 '양림' 등 다채로운 무대로 시민과 만난다. 사진은 광주시립발레단 공연 모습.

발레 '백조의 호수', 창극 '적벽대전', 낭독극 '양림',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올 하반기 광주시립교향악단 등 8개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다채로운 무대로 시민들과 만난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하 문예회관)은 최근 광주시립예술단 2021 하반기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먼저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자 홍석원)은 제356회 정기연주회 '음악휴가'로 하반기를 시작한다.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이날 공연에서는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슈만, 교향곡 제3번 '라인' 등과 함께 휴가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을 들려주며,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과의 협연으로 브루흐의 '스콜라랜드 환상곡'을 연주한다. 다음 공연은 8월 26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제357회 정기연주회 'Healing in Nature'다. 오보이스트 한이재의 협연으로 윌리엄스의 '오보에 협주곡 A단조'를 선보이며, 슈베르트 '로자문테 서곡',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을 들려준다.

이어 선보이는 정기연주회 '고전의 품격'은 10월 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만날 수 있다.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D장조'는 첼리스트 김두민이 협연하며 브루크너의 '교향곡 6번'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11월 18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마지막 유산' 공연에서는 홍석원 지휘와 손민수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7번'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을 연주한다.

올해 마지막 공연은 제360회 정기음악회 2021 송년음악회 '향연' (12월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이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



손민수



임윤찬

번',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을 연주하며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협연한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은 올 하반기 광주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9월~10월 선보이는 특별기획공연 '빛의 정원'은 창작 발레와 클래식 발레를 접목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여주는 무대로 문예회관 잔디광장과 광주시립미술관 야외무대를 비롯해 광주 도심 일대에서 펼쳐진다.

또 코로나 극복 힐링 콘서트 '백조의 호수' (10월 16일)는 광주호호수생태원에서 선보이며, 명작발레 하이라이트 콘서트는 10월 21일 광주북구문화

센터 무대에 올린다. 발레단은 대표 레퍼토리인 '호두까기 인형' (12월 23일~2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으로 올 한해를 마무리 한다.

광주시립합창단(지휘자 김인재)은 하반기 두 번의 정기연주회를 준비했다. 187회 정기연주회 '맛깔난 우리 식탁'은 '늦가을 감성과 추억, 그리고 정겨운 우리 식탁'을 주제로 10월 28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어 선보이는 '올 겨울엔 뭐니 뭐니 해도' (12월 14일 문예회관 소극장) 공연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노래와 캐롤을 통해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행복을 느껴보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박주현)은 '슈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with 발레'를 12월 4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어린이다운 순수한 선율을 멜로디 삼아 음악적으로 표현한 슈만의 '어린이 정경'을 합창곡으로 편곡해 무대를 꾸민다.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유영애)은 제56회 정기공연 '적벽대전'을 11월 5일~6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한다. '적벽대전'은 판소리 '적벽가'를 창극으로 만든 작품으로 창극단은 이를 통해 판소리 다섯 바탕 모두를 창극 작품으로 완성해 의미가 있다. 12월 10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송년 국악한마당'에서는 창극단 대표 레퍼토리를 송년 분위기에 맞게 선보인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자 한상일)은 제128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를 12월 16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명인, 명창들의 무대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광주시립극단은 제1회 창작희곡 공모전 당선작 '양림(楊林)' 낭독공연을 선보인다. 8월 20일 문예회관 소극장. 이창아 작가의 작품이며 광주 근현대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양림을 배경으로 주인공 요섭이 고향을 떠나 겪은 일을 다룬다. 11월 25일~27일 무대에는 제17회 정기공연 '나의 살던 고향'을 올린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올해 하반기 첫 공연으로 이견용 오페라 '박하사랑' (8월 27~2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선보인다. 이어 오페라단 대표 레퍼토리인 '헨젤과 그레텔'을 광주를 비롯해 사천, 용인, 육천 등의 무대에 올린다. 아울러 하반기 마지막 공연 '월드 클래식 오페라 시리즈 I' (12월 3~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는 오페라 명작을 주축으로 가장 빛나는 오페라 명장면들을 모아 선보인다. /전재제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 교육 '기술입은 문화예술교육(사진)'에 참여할 중학생 3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제1기(고등학생 대상), 제2기(중학생 대상)로 나눠 대면·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제1기는 전국 고등학생 34명이 참여해 지난 6월 12일부터 교육을 시작했으며, 오는 8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8차시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현재 제1기는 '웰컴 투 마이 아트 하우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강사진은 기획자 신희홍(태이움직임연구소 대표), 책임연구원 박상화(미디어아티스트)를 중심으로 박연숙(주강사), 전재희(공연예술), 노옥정(공연예술) 등이며 '3개 소규모 분반 담임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2기는 오는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된다. 구체적 내용은 '융합 예술만나기-미디어아트 현장체험', '아트하우스 상상하고, 만들고 꾸미기' 등이다. 이밖에 '웰컴 투 마이 아트하우스 공동실연'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 아트퍼포먼스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5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예술인 1만5000명에

## 1인당 300만원 창작준비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을 통해 예술인 1만5000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당초보다 9000 명이 증가한 규모로, 2차 추경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신청은 8월 4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훌쩍 신청제를 도입한다.

창작디딤돌은 예술활동증명 원료,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혜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가운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하며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연합뉴스

## 산과 어머니로부터 얻은 삶의 지혜

### 김규성 시인 '산경' '모경' 펴내

지난 2000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해 밀도 있는 시집을 꾸준히 펴내고 있는 김규성 시인. 산문집 '말'에서는 동서양 고전에 기대 몸과 마음의 비밀을 풀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시인은 최근 산과 어머니로부터 얻은 삶의 지혜를 두 권의 시집으로 갈무리한 '산경'과 '모경'을 펴냈다.

두 작품집에 공통으로 들어간 '경(經)은 비단

실과 베를의 세로줄 모양을 조합한 글자다. '바른 길이 곧 지름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산과 어머니로부터 비롯된 지혜이지만 시인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연유하는 부분도 있다. '산경'에는 산에서 얻은 단상 108편이, '모경'에는 어머니로부터 발원하는 삶에 대한 통찰 등을 담은 90편이 수록돼 있다.

'산경'의 서문에 밝힌 산에 대한 헌사는 다분히 철학적이거나 사색적이다. 그럼에도 이내 수긍하게 된다.

"아직까지 나는 산의 언어를 통역해 주는 어떤



사람도, 책도 만나지 못했다. 우주간 한 편의 시라면 산의 언어는 그 행간을 이루는 침묵과 닮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만 조심스럽게 되새길 따름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머니를 모티브로 한 작품은 깊은 여운을 주며, 한편으로 삶의 성찰이 돋보인다. 화자의 시선은 곧은 반면 사유는 냉철하다.

"어머니는 나를 보실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어여쁜 꽃이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계시기에 나는 나이 들어서도 한 송이 꽃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한테만 그토록 삼삼히 눈에 밟히는 꽃이었다..." ('모경' 중에서)

한편 김 시인은 현재 담양군 대덕면 소재지에서 만연산과 연산이 이루는 골짜기 너머에 문학집필 공간 '글 낚는 집'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문인들이 이곳에 가끔 머물며 창작을 한다. 지금까지 시집 '고파'라는 말을 못했다', '신이 놓친 악보'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